

삼성바이오에피스, 中 기업과 파트너십 체결

바이오시밀러 3종, 로열티 받는다... 中시장 선점 가속

(허셉틴·루센티스·솔리리스)



C-브릿지와 SB3·SB11·SB12 등 중국 내 임상, 인허가·상업화 협업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중국 기업과 두 번째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세계 2위의 중국 바이오의약품 시장 진입속도를 높이고 있다.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에 이어 허셉틴, 루센티스, 솔리리스 바이오시밀러도 중국으로 진출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11일 중국의 벤처펀드 운용사 'C-브릿지 캐피탈(이하 C-브릿지)'과 바이오시밀러 제품 판매 관련 계약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중국 파트너십 현황)

| | | |
|--------|---|---|
| 계약 대상 | 3S바이오 | C-브릿지 ↓ 바이오제약사 에퍼메드셀림 |
| 계약 내용 | 중국 내 임상, 허가 등을 협업하며 제품 판매에 대한 로열티를 삼성에 지급 | 중국 내 임상, 허가 등을 협업하며 제품 판매에 대한 로열티를 삼성에 지급 |
| 계약 파트너 | SB8(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등 | SB3(허셉틴 바이오시밀러) SB11(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 SB12(솔리리스 바이오시밀러) |

C-브릿지는 SB3(허셉틴 바이오시밀러), SB11(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SB12(솔리리스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중국 내 임상, 인허가 및 상업화를 협업하게 된다.

인허가와 판매 등은 C-브릿지가 설립한 바이오 기업 '에퍼메드 테라퓨틱스'가

담당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관련 계약에 대한 선수금을 확보하고 향후 제품 판매에 따른 일정 비율의 로열티를 지급 받는다.

C-브릿지는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진단 등 헬스케어 서비스 전 분야에 걸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운용 자산은 약 2조원에 이른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고한승 사장은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보다 많은 환자들에게 고품질 바이오 의약품을 통한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C-브릿지는 중국 시장에서 당사의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훌륭한 파트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올해 들어 중국 기업과 두건의 파트너십을 맺으며, 중국 의약품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중국 바이오제약 전문기업 '3S바이오'와 SB8(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의 중국 내 임상, 인허가 및 상업화에 관한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향후 자체 개발해 유럽에서 높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3종, SB2(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SB4(엔브렐 바이오시밀러), SB5(휴미라 바이오시밀러)를 중국에 판매

해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중국 자가면역질환치료제 시장은 이미 3S바이오를 비롯한 로컬 업체들이 시장을 선점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로 우선 진입할 계획은 없다"며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중국에서 다수의 파이프라인에 대해 임상 및 허가를 동시에 진행해 시장을 차차 공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현재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의약품 시장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중국 제약 시장의 성장률은 2025년까지 연평균 약 20%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60대 이상 고령층은 2억9000만명(2020년)에서 4억9000만명(2050년)으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이에 따른 헬스케어 비용 역시 2025년까지 연평균 15.6%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올 신규채용, 업종별 온도차 뚜렷

금융·보험 '웃고', 유통·물류 '울고'

금융·보험 업종 47.5% 채용 계획

올해 대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대졸 신입사원 채용을 확정 지은 가운데 업종별 채용 기상은 희비가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인크루트가 646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대졸 신입 정규직 채용 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확실한 채용계획이 있다'는 기업은 35.6%에 그쳤고, '채용의사는 있으나 채용계획이 미정'인 기업은 43.7%였다. '채용 여부 자체가 불확실하다'(15.4%)거나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을 것이다'(5.3%) 등으로 조사됐다.

채용계획이 확실하다고 응답한 기업 중 대기업의 비율은 63.7%로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40.2%), 중소기업(27.2%)으로 기업 규모별 격차가 컸다.

특히 확실한 채용계획은 업종별 차이를 드러냈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을 12개 업종으로 구분해 업종별 채용계획을 교차분석한 결과 올해 가장 확실한 채용계획을 내놓은 비율은 금융·보험(47.5%)이 전체 업종 중 가장 높았다. 정보통신

(40.0%) 역시 높은 채용계획을 예고했다. 이어 ▲건설·토목·부동산·임대(38.8%), ▲여행·숙박 및 기타서비스(38.6%), ▲의류·신발·기타제조(37.5%), ▲문화·미디어(36.7%), ▲전기·전자(36.2%), ▲기계·금속·조선·중공업(35.9%) 분야 채용 확정 비율이 평균 수준을 웃돌거나 비슷했다.

반면 채용계획을 보수적으로 내다본 업종은 ▲정유·화학·섬유·의약(31.6%), ▲자동차 및 부품(31.4%), ▲식음료(30.4%), ▲유통·물류(28.6%)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채용계획이 가장 적을 것으로 보이는 ▲유통·물류 업종의 경우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을 계획'(11.9%)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업종 중 가장 높았다.

결국 올해 채용계획이 가장 높은 업종은 금융·보험과 정보통신으로, 각각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인력 공백 메우기와 ICT수출 호황으로 인한 신규인력 수요 증대가 배경으로 꼽힌다. 반대로 유통·물류의 경우 각종 규제와 최저임금 문제로 올해도 신규인력 충원 노력이 가장 적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용수 기자 hys@

엘리엇 협박 공세에도 기업 압박하는 정부?

>> 1번 '팅팅비는 기업 공간'서 계속

4분기 '어닝 쇼크' 릴레이로 경제 성장 둔화가 현실화된 상황, 추가 투자 여력에도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고배당 정책이 외국 자본의 압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입을 모은다.

삼성전자와 포스코 등 주요 기업의 외국인 비중은 50% 수준, 투기 성향이 강한 외국 자본의 배당 압박을 이겨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근에는 외국 자본의 경영권 공격이 이어지면서 공포감까지 커진 상태다. 엘리엇이 대표적이다.

엘리엇은 현대차그룹 지분이 3%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지배구조개편안을 무력

화하는 등 경영권에 큰 흠집을 냈다. 이어서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매입하라는 등 협박을 이어가면서 적지 않은 수익을 챙겨가는데 성공했다.

그룹에도 정부는 오히려 기업을 압박하는데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스톱워딩 코드 도입하고 경영권 참여를 공식화한데 이어, 지난 7일에는 배당액이 적다는 이유로 남양유업에 경영권 개입을 결정했다.이에 따라 얼어붙은 투자 심리는 올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설비투자액은 전년비 4.2%나 감소했다. 올해에도 여기에서 단 1%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용 기자 juk@

남양유업, 국민연금 배당 확대요구 '거부'

"유보금 늘려 기업가치 높일 것"

남양유업이 국민연금의 배당확대 제안을 거부했다. 배당을 확대하면 오히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더 혜택을 보는 만큼 사내유보금을 늘려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이 더 낫다는 이유를 들었다.

남양유업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저배당 정책은 사내유보금을 늘려 기업가치를 올리기 위한 선택"이라고 전제한 후 "최대주주(51.68%) 및 특수관계인(2.17%)의 지분율이 총 53.85%로 배당을 확대한다면 늘어난 배당금의 50% 이상이 이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결국 배당을 확대하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혜택을 보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어 "지분율 6.15%를 가진 국민연금이 주주 권익을 대변한다는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합법적인 고배당 정책을 이용해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이익 증대를 대변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은 그동안 고배당을 통한 회사 이익의 사외유출보다는 사내유보를 함으로써 재무구조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투자를 위한 밑거름으로 활용하는 것이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판단하에 저배당 정책을 유지해 왔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저배당 기조를 통한 회사 이익의 사외유출을 최소화함으로써 1997년 IMF 외환위기부터 무차입 경영이 가능했고, 이후 재무구조 건전성

이 높아지고 기업의 가치는 더욱더 상승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위원장 박상수 경희대 교수)는 지난 7일 주주권행사 분과위원회를 열어 '배당 관련 공개중점기업(남양유업)에 대한 주주제안 행사(안) 등을 검토, 논의한 바 있다.

논의 결과, 국민연금은 남양유업(주)에 '배당정책 수립·공시와 관련해 심의·자문하는 위원회(이사회와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도록 주주제안을 하기로 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주주제안은 안건으로 상정해 주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네이버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 그린팩토리 앞에서 열린 단체행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파업으로 한걸음씩 다가서는 네이버 노조

네이버 노조, 기자회견

"20일 쟁의행위... 변화없다면 파업 경영진, 진실된 자세로 교섭해야"

네이버 노동조합이 첫 쟁의행위에 돌입하며 사측에 의사를 전달했다.

네이버노조(민주노동총화학생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네이버지회)는 11일 네이버 본사 사옥 앞에서 단체 행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쟁의에도 불구하고 사

측이 변화가 없다면 파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네이버노조 오세운 지회장은 "시작부터 파업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조합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 표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노조는 오는 20일 그린팩토리 본사 1층 로비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첫 공식 쟁의행위를 펼칠 계획이다. 오 지회장은 "3월 말경 IT업계 및 상급단체인 화학섬유식품노조 산하의 노동조합들과 연대한 대규모 쟁의행위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지회장은 "네이버 경영진의 노동 3권에 대한 인식은 글로벌 수준에서 한참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하며 "서비스의 중단이 우려된다면 서비스를 만드는 노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진실된 자세로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이버노조는 작년 4월 설립된 후, 5월 노사 교섭 상견례를 가졌다. 그 후 15번의 교섭이 이뤄졌지만, 12월 교섭이 최종 결렬됐다. 지난달 진행된 네이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찬성 96.07%(투표율 97.82%)로 가결됐다. /구서윤 기자 yuni2514@